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

정윤경* · 김혜진** · 김정우***

초 록

본 연구는 일반중학교 1학년~3학년 청소년 3,19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소년 안전[보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검증을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학교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가정,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 제언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가정폭력노출, 학교폭력 가해, 자기 보호태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 교신저자, jiny0705@yonsei.ac.kr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I. 서 론

최근 학교폭력은 학교 내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2010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율은 20.9%로 10명 중 2명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이는 2008년 8.5%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이들 중 57.3%는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예방적 접근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와 학계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양상은 저연령화, 집단화 현상과 함께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왕따, 그리고 사이버폭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존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들에서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요인(김영순, 2007; Chen & Wei, 2011; Keiley, Howe, Dodge, Bates & Pettit 2001), 가정요인(이승출, 2012; 조춘범, 조남홍, 2011; Mejia, Kliewer & Williams, 2006), 학교요인(Chen & Astor, 2011; Alikasifoglu et al., 2004) 등이 밝혀져 있다. 그 중 청소년에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환경체계인 가정(노충래, 이신옥, 2003)에서의 폭력 경험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또래관계에서의 공격성(신선인, 2008; 이은주, 2004; 김재엽, 2001; Fantuzzo & Mohr, 1999)을 유발하고,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춘범, 조남홍, 2011; 김민정, 2010; 김재엽, 이지현, 정운경, 2008; Bancroft & Silverman, 2002). 이처럼 그동안 가정폭력노출과 학교폭력 가해와의 관계성을 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이 두 변인간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그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가정환경과 또래관계의 영향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또래관계에서의 자기 보호태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폭력, 가출, 약물, 유해매체 접촉 등 비행행동을 하는 또래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 노력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분석함으로써 또래친

구로부터 영향력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관점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가해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중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의 모델링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이승출, 2012; 조춘범, 조남홍, 2011)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사회학습이론의 경우 외부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인의 내적이고 자발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성장한 청소년 중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행하는 친구들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자기 보호적 노력이 가정폭력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학교폭력 가해로의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일반긴장이론(Agnew, 1992; Agnew, 2001)을 토대로 연구·검증하고자 한다.

일반긴장이론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자극 제거, 부정적 자극에의 직면 등 세 가지 유형에서 긴장이 기인한다고 보았다(Agnew, 1992; Carson, 2007). 특히 가정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 자극에서의 긴장은 사회나 타인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며 개인으로 하여금 비행을 저지르게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Carson, 2007)작용하게 된다. 수정된 일반긴장이론(Agnew, 2001)에 따르면 부모의 거부나 부정적 학대 경험, 범죄 피해 등이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강력한 긴장요인으로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개인역량이 낮을 경우 범죄나 비행에 가담하게 된다. 즉,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전부 일탈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감정적·정신적·행동적 자원을 통해 긴장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iegel,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세 가지 긴장 유형 중 부정적 자극의 출현으로 인한 긴장에 초점을 맞춰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력과 보호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가해행동

가정폭력은 부부간 배우자폭력,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자녀학대,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폭력, 그리고 형제간의 폭력 등이 있으며(김정옥, 박경규, 2002),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고 할 때에는 직접적인 폭력피해 외에도 가족 구성원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노출을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자녀학대로써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정폭력은 발생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에서 피해청소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폭력에의 노출은 청소년에게 있어 부정적인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장기간 가정폭력 노출로 인해 축적된 긴장요인은 청소년의 폭력과 일탈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Mejia et al.(2006)은 11세에서 19세 청소년 1,152명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학대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김정옥과 박경규(2002)는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54명과 현재 폭력과 관련되어 소년원에서 보호받고 있거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비행청소년과의 비교연구를 한 결과, 언어적 학대와 방임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 학교폭력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김재엽 외(2008)는 서울시 및 경기도 내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발생에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경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준범과 조남홍(2011)의 연구에서도 서울시 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와 학교폭력 가해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 스스로가 보호노력을 함으로써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태도를 일탈행위를 하는 친구와 어울리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폭력을 하는 친구, 가출을 하는 친구, 유해매체를 이용하는 친구, 유해약물을 사용하는 친구,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경우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집단은 또래집단이고 그들의 문화나 행동양식은 청소년이 부딪치게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통제함으로써(Sutherland, 1939) 일탈 행위나 태도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Warr(1993)는 비행친구들과 오랜 기간 어울린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Mazeroll과 Maahs(2000)는 비행친구들에게 자주 노출되거나 사회적 유대가 약할 때 긴장이 비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지닌다.

국내에서는 최선희와 김희수(2006)의 아동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다차원 상호작용을 알아본 연구결과, 충동성이 높고 학업적응을 못하는 아동이 비행 또래친구가 있음으로 해서 비행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영옥과 김정남(2011)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여자청소년 4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향성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폭력행동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관계의 조절효과를 보고하였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규율과 승인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또한 보호 기제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스스로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행친구와 어울리지 않으려는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가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하는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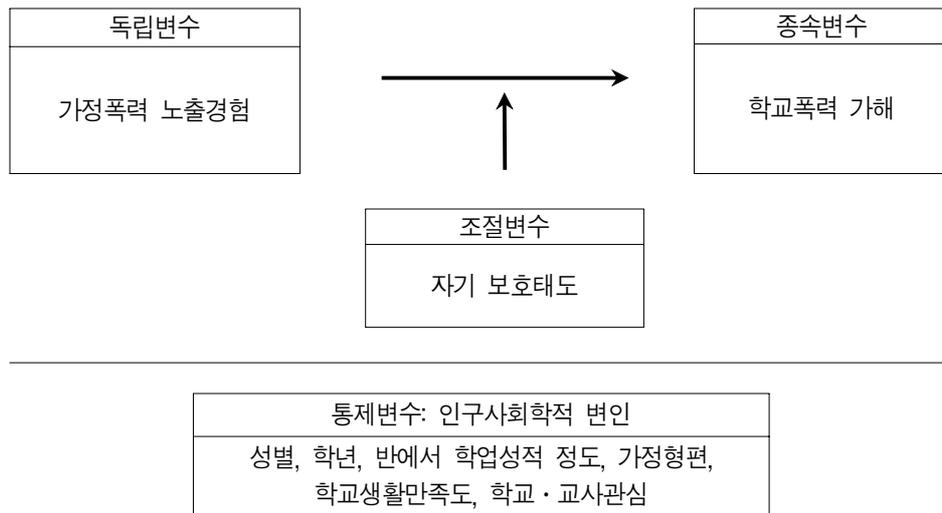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0 청소년 안전보호실태조사'자료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중·고등학교 현황 기초를 토대로 전국 12개 시·도의 중학교(1~3학년),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1~3학년)로 층화하였고, 제주도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조사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층화 지역별 학생수 비례 목표 표본수를 할당하여 대상자를 추출하였다(이기봉, 2011). 조사기간은 2010년 6월 21일부터 7월 22일이었으며, 조사대상은 중학교 1-3학년~고등학교 1-3학년의 청소년으로 7,084명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 청소년 안전[보호]실태조사’ 자료 중 일반 중학교 1학년~3학년 학생 3,196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3. 주요 변수의 측정도구

1) 독립변수: 가정폭력 노출경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부모(또는 보호자)로부터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신체적 체벌’과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한 욕설’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1년에 1~2회 정도, 1년에 3~4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 종속변수: 학교폭력 가해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는 ‘학교 안팎에서 친구, 선후배들에게 가하는 신체폭행’, ‘금품갈취’, ‘심한 욕설이나 헐박’, ‘집단따돌림’, ‘사이버/휴대전화 폭력’의 5개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이승출, 2012; 김재엽, 이순호, 2011; 노충래, 이신옥, 2003)에서 조사된 학교폭력유형에 덧붙여 사이버/휴대전화 폭력 유형이 추가됨으로 보다 확장된 형태이다.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1년에 1~2회 정도, 1년에 3~4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 조절변수: 자기 보호태도

본 연구에서 자기 보호태도는 폭력, 가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과 관련된 또래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노력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보호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조절변수와 통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독립변수인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조절변수인 보호행동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은 총 1,591명인 49.8%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1,604명으로 50.2%로 나타나 조사대상 성별에 있어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학년은 2학년 1,107명(34.6%), 3학년 1,072명(33.5%), 1학년 1,017명(31.8%)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을 알아본 결과 ‘중간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06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못하는 수준’과 ‘잘하는 수준’이 각각 781명(24.6%), 602명(19.0%)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가정형편을 살펴본 결과,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자가 1,316명(41.7%)로 가장 많았고, ‘매우 못 산다’부터 ‘보통수준’ 미만까지 응답한 경우가 총 513명(16.3%)이었으며, ‘보통수준’보다 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1,329명(42.1%)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생활만족도는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인 1,854명(58.2%)이 ‘즐겁다’(‘약간 즐겁다’, ‘매우 즐겁다’)고 응답한 반면, 500명(15.7%)이 ‘즐겁지 않다’(‘전혀 즐겁지 않다’, ‘별로 즐겁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는 828명(26.0%)이었다. 여섯째, 학교·교사의 관심도는 전체 1점에서 5점 척도로부터 평균 3.70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n=3,195)	남성	1,591	49.8	-	-	
	여성	1,604	50.2			
연령(학년) (n=3,196)	중학교 1학년	1,017	31.8	-	-	
	중학교 2학년	1,107	34.6			
	중학교 3학년	1,072	33.5			
인구 사회 학적 변인	학업성적 정도 (n=3,175)	매우 못하는 수준	266	8.4	2.91	1.020
		못하는 수준	781	24.6		
		중간	1,306	41.1		
		잘하는 수준	602	19.0		
		매우 잘하는 수준	220	6.9		
가정형편 (n=3,158)	매우 못 산다	40	1.3	4.16	1.182	
	2	110	3.5			
	3	363	11.5			
	보통수준	1,316	41.7			
	5	815	25.8			
	6	384	12.2			
	매우 잘산다	130	4.1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학 교 변 인	학교생활만족도 (n=3,182)	전혀 즐겁지 않다	209	6.6	3.60	1.138
		별로 즐겁지 않다	291	9.1		
		그저 그렇다	828	26.0		
		약간 즐겁다	1,093	34.3		
		매우 즐겁다	761	23.9		
학교·교사 관심도 (n=3,177)	-	-	3.70	1.077		

2. 학교폭력 가해 실태

지난 1년 동안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또래 및 선·후배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심한 욕설이나 헐박’ 등 언어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총 369명(1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쉽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행위 중 높게 나타난 유형은 신체적 ‘폭행’(195명, 6.2%), ‘집단 따돌림’(173명, 5.5%), ‘사이버나 휴대전화를 통한 폭력’(80명, 2.7%)순이었다. 특히, ‘사이버나 휴대전화를 통한 폭력’의 경우 비록 적은 수치이긴 하나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으로 더 이상 대인관계를 면대면 관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으로도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된 학교폭력 유형 중 어느 하나라도 가해행동을 했다고 한 응답자의 경우는 554명(18.5%)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폭력 가해

단위: 명(%)

폭력유형	경험빈도(지난 1년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심한 욕설/협박하기 (n=3,157)	2,788 (88.3)	190 (6.0)	52 (1.6)	39 (1.2)	22 (0.7)	66 (2.1)
폭행하기 (n=3,145)	2,950 (93.8)	102 (3.2)	23 (0.7)	29 (0.9)	21 (0.7)	20 (0.6)
돈이나 물건 빼앗기 (n=3,144)	3,028 (96.3)	63 (2.0)	25 (0.8)	11 (0.3)	5 (0.2)	12 (0.4)
집단따돌림(왕따)하기 (n=3,143)	2,970 (94.5)	117 (3.7)	14 (0.4)	14 (0.4)	14 (0.4)	14 (0.4)
사이버/휴대전화 폭력하기 (n=2,931)	2,851 (97.3)	39 (1.3)	14 (0.5)	11 (0.4)	5 (0.2)	11 (0.4)

3.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실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 노출실태는 다음 표 3과 같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부당한 신체적 처벌’을 경험한 청소년은 450명(14.2%)이었으며,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한 욕설’의 경우 429명(13.6%)이 경험한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약 7명당 1명 정도가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청소년 가정폭력 경험

단위: 명(%)

폭력유형	경험빈도(지난 1년간)					
	전혀 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부당한 신체적 체벌 (n=3,168)	2,718 (85.8)	222 (6.9)	121 (3.8)	72 (2.3)	21 (0.7)	14 (0.4)
부당한 심한 욕설 (n=3,161)	2,732 (86.4)	199 (6.3)	61 (1.9)	85 (2.7)	45 (1.4)	39 (1.2)

4. 자기 보호태도 실태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자기 보호태도실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자기 보호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가출, 유해매체 이용, 유해약물(술, 담배, 본드 등) 사용, 유해업소 출입 등 비행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므로써 친구들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동화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자기보호 태도가 전체 5점 척도에서 평균 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해약물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기 보호태도 평균이 4.21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폭력사용’, ‘가출’, ‘유해매체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기 보호태도의 경우 각각 평균이 3.62, 3.66, 3.90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인 중학생의 경우에 유해업소와 유해약물에 대해서는 비행행동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으며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경계하고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자기 보호태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폭력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n=3,185)	3.62	1.221
가출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n=3,181)	3.66	1.276
유해매체를 이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n=3,184)	3.90	1.327
유해약물(술, 담배, 본드 등)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n=3,185)	4.21	1.237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n=3,189)	4.26	1.188
전체(n=3,192)	3.93	1.05

5.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의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 반에서의 학업성적 정도, 학년, 가정형편,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교사 관심도를 통제변수로, 가정폭력 노출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Model 1), 다음 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와 독립변수, 그리고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Model 2).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인 가정폭력 노출과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가해는 ‘유’, ‘무’로 변환하여 합산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다중공선성을 낮추고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사용하였다(홍세희, 2007).

분석결과, Model 1의 설명력은 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 .001$), 독립변수인 가정폭력노출($\beta = .142$, $p < .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beta = -.122, p < .001$), 학년($\beta = -.098, p < .001$), 학교성적($\beta = -.061, p < .01$), 학교생활의 만족도($\beta = -.038, p < .05$), 학교·교사의 관심도($\beta = -.084, p < .001$)가 학교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에 노출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학교·교사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Model 2의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명력 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상호작용항에서는 가정폭력 노출과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beta = -.044$)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가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 검증

구 분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성별	-.183***	.026	-.122	-.159***	.027	-.105	
학년	-.091***	.017	-.098	-.100***	.017	-.107	
통제변수	학교성적	-.045**	.014	-.040**	.014	-.055	
	가정형편	.013	.012	.019	.013	.020	
	학교생활 만족도	-.025*	.012	-.038	-.022	-.034	
	학교·교사 관심도	-.059***	.013	-.084	-.032*	-.045	
독립변수	가정폭력 노출(a)	.175***	.022	.142	.153***	.022	.125
조절변수	자기 보호태도(b)	-	-	-	-.081***	.014	-.112
상호작용항	(a)*(b)	-	-	-	-.049*	.020	-.044

구 분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유효수(N)	2,899					
상수	.918			.869		
R ²	.061			.074		
adjusted R ²	.059***			.071***		
F	28,551***			26,994***		
R ² change	.061			.012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자기 보호태도의 값을 세 수준*으로 나누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른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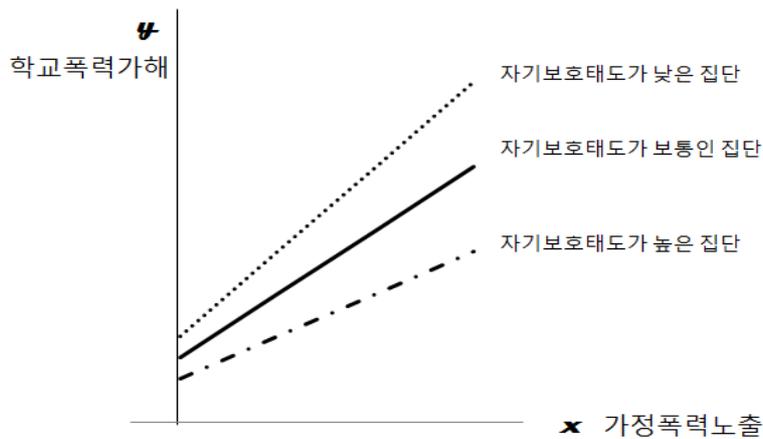


그림 2.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기 보호태도가 낮은 집단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급하고, 높은 집단이 가장 완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조절변수의 수준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프 작성을 위해 편의상 조절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 1 S.D 3집단으로 구분한다(홍세희, 2007).

년일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되는데, 이때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할 위험 정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청소년의 자기 보호 태도가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0 청소년 안전(보호)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 중학교 1학년~3학년 학생 3,1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가정폭력 노출 실태는 분석결과,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부당한 신체적 처벌'이 14.2%, '심한 욕설'의 경우 13.6%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의 경우 '심한 욕설이나 협박'이 11.7%, '폭행'이 6.2%, '돈이나 물건 빼앗기'가 3.7%, '집단 따돌림'이 5.5%, '사이버나 휴대전화를 통한 폭력'이 2.7%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폭력유형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가해행동을 한 경우는 1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가해실태는 '201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에서 제시된 20.9%의 학교폭력 가해율과 비슷한 수준이나 이승철(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27.9%나 김재엽 외(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30.9%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정적 영향을,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 노출이 높을수록,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가정폭력 피해가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조춘범, 조남홍, 2011; 김민정, 2010; 김재엽 외, 2008; 김정옥, 박경규, 2002)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조절변수인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의 비행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자기보호태도의 중요성과 함께 청소년들이 또래친구들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청소년의 자기 보호태도가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남영옥과 김정남(2011)이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폭력행동의 두 변인사이에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친구와 함께 어울리게 될수록 폭력행동을 더 많이 행사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청소년 스스로의 보호노력이 가정폭력 노출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청소년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한다.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동질성을 추구하면서 우정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다. 이 때 동질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나 행동을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기를 보호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또래의 압력이나 강요를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손승아, 안경수, 김승경, 2006) 유해한 환경이나 유혹에 저항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Gardner, Dishion and Connell(2008)은 종단연구를 통해 비행하는 또래친구들이 있는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이후 반사회적 행동을 할 위험에 대해 자기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폭력에 노출된 가정과 비행하는 또래친구들이 있는 학교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자기를 지키려는 능력이나 기술을 함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폭력상황으로부터 동화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학교차원에서 건전한 또래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또래 영향이 지대한 청소년기의 특성상 청소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업뿐 아니라 비행도 학습하게 되는 장(場)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인터넷을 이용한 비행에도 가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많은 종단연구들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데에 비행

하는 또래친구들의 영향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Dodge, Dishion & Lansford, 2006; Gardner et al., 2008).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자체를 근절하려는 대책들과 함께 학교가 청소년들의 보호환경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함의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가정폭력 노출을 측정함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방임이나 성적폭력 및 부모간 폭력 목적 등 다양한 가정폭력 유형이 포함되지 못하여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대상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중학교 1-3학년만을 분석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청소년 계층까지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청소년의 연령층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연령층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다양한 개입방법이 논의 및 제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방법에 따른 제한점으로, 본 연구 데이터는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가해 및 자기 보호태도가 횡단적으로 조사되어 변인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자기 보호태도와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10).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6(1), 27-53.
- 김영순 (2007).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에니어그램연구**, 4(1), 71-97.
- 김재엽 (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연세사회복지연구**, 6(7), 1-32.
- 김재엽, 이순호 (2011).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군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109-138.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 29-59.
- 김정옥, 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93-115.
- 남영옥, 김정남 (2011).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여자청소년의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43-264.
- 노충래, 이신옥 (2003).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 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피해경험, 내적 통제감 및 학교생활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지**, 1(6), 1-35.
-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2006).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심리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127-148.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181.
- 이기봉 (2011). 2010 **한국청소년 안전(보호)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승출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9, 116-135.
- 이은주 (2004).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인기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8(4), 629-647.

- 조준범, 조남홍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선희, 김희수 (2006). 아동의 비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다차원 상호작용. **한국아동복지학**, 21, 233-258.
- 최인재, 이기봉, 김청송, 김진호 (201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 2010 한국청소년 건강·안전(보호) 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연구보고 10-R1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세희 (2007). 위계적, 종단적 자료에 대한 다층모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워크샵 자료집: 2007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II**, 18-30.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8.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 Alikasifoglu, M., Erginoz, E., Ercan, O., Uysal, U., Kaymak, DA., & Iiter, O. (2004). Violent behavior among turkish high school students and correlate of physical fighting.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4(2), 173-177.
- Bancroft, L. R., & Silverman, J. G. (2002). *The betterer as parent: Addressing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family dynamics* (1st ed.). Thousand Oaks: Sage.
- Carson, D. C. (2007). *Using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victimization and devia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Chen J. K., & Astor, R. A. (2011). School engagement, risky peers,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s mediators of school violence in Taiwanese vocational versus academically oriented high school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1), 10-30.

- Chen J. K., & Wei, H. S. (2011). The impact of school violence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taiwanes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3), 479-498.
- Dodge, K. A., Dishion, T. J., & Lansford, J. E. (2006). *Deviant peer influences in programs for youth(Problems and Solutions)*. New York: Guilford.
- Fantuzzo, J. W., & Mohr, W. K. (1999). Prevalence and effects of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Future of Children, 9*(3), 21-32.
- Gardner, T. W., Dishion, T. J., & Connell, A. M. (2008). Adolescent self-regulation as resilience: Resistance to antisocial behavior within the deviant peer contex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273-284.
- James F., & Short, J. R. (1960). Differential association as hypothesis: Problems of empirical testing. *Social Problems, 8*(1), 14-25.
- Keiley, M. K., Howe, T. R.,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2001). The timing of child physical maltreatment: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of impact on adolescent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891-912.
- Mazerolle, P., & Maahs, J. (2000).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n alternative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 *Justice Quarterly, 17*, 753-778.
- Mejia, R., Kliever, W., & Williams, L. (2006). Domestic violence exposure in colombian adolescents: Pathways to violent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2), 257-267.
- Siegel, L. J. (2008).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11th ed.). Belmont, CA: Wadsworth.
- Sutherland, E. H. (1939). *Principles of criminology*. Chicago,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Warr, M. (1993). Age, peer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1*, 17-40.

ABSTRACT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school vio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ir self-protective attitudes toward deviant peers

Chung, Yun-Kung* · Kim, Hye-Jin* · Kim, Jung-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their own violent behavior in school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ir self-protective attitudes toward deviant peers. The study used the data set of the 2010's National Survey for Adolescents' Safety and Protection, which wa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In this study, a cross-sectional design was employed and a sample of 3,196 middle school students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exposure to family violence indicated that there exist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ir violent behavior in school. Next, the self-protective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their deviant peers reveal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exposure to family violence and their own violent behavior in school. These findings provide a number of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direct service providers to reduce the incidence of adolescent school based violence.

Key Words : family violence, school violence, self-protective attitudes,
deviant peers

투고일 : 6월 11일, 심사일 : 9월 3일, 심사완료일 : 9월 25일

* Yonsei University